

“빨래방 망글어줘 고맙소” 전남도, 마을 공동빨래방 인기

도·시군 협력 고향사랑기금사업 일환… 대형세탁물 처리지원
올해 4개소 운영… 완도 청산국민체육센터서 1호점 현판식

전라남도가 고향사랑기금 일환으로 운영 중인 마을 공동빨래방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된 ‘마을 공동 빨래방 공식 1호점’ 현판식을 지난 19일 완도 청산면 청산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현판식은 전남고향사랑 실천의 출발을 알리며 전남도 및 완도군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고향사랑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신의준 전남도의원, 청산면 부녀회, 이장단, 변영희, 주민, 공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마을 빨래방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마을 공동 빨래방’은 기부자가 공감하고 도와 시군이 공동협력하는 고향사랑기금사업이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형 세탁물 처리를 위한 대형 세탁기

및 건조기를 구입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이 상생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일환으로 ‘마을 공동 빨래방’ 기금사업을 발굴, 올해부터 완도 청산면, 여수 남면, 강진 성전면, 함평읍 등 4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한 올해 8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청산면은 자연경관과 다양한 전통문화 유산을 보유한 아름다운 곳이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45% 달하는 고령화 대응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로, 빨래방 사업의 필요성이 높게 제기됐다. 현재 거동 불편, 독거노인 등 110가구 360여 명에게 ‘원스톱 이불빨래 세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날 현판식에선 김영란(75) 할머니가 “늙어서 겨울 이불 빨래는 입두도 못 냈는데요. 도청하고 군에서 우리 마을에 빨래방을 망글어줘서 참말로 고맙소”라



며 감사의 마음을 손으로 눌러쓴 손편지를 전달해 감동을 전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마을 공동 빨래방 공식 1호점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전남을 사랑하는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다”며 “도와 시군이 상생해 고향사랑기금사업이 성공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하고 지자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염선호 기자



HD현대삼호, AI로봇 현장실증 교육센터 출범

로봇기술 실증·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조선소 구축 핵심 역할 기대”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가 조선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위한 전문 교육센터를 출범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HD현대삼호는 최근 자동화·지능화 기술 향상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AI로봇 현장실증 교육센터’를 준공해 본격 운영에 나섰다

이날 센터 건립에는 정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 등 국비를 포함해 총 16억 7,000여 원이 투입됐다.

센터는 로봇 개발과 실증, 오퍼레이터 교육,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로봇 Total

Solution’ 통합 공간으로, 다양한 협동로봇과 AI 분석 장비, 교육 설비 등을 완비해 이론과 실습 교육이 모두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AI로봇과 스마트 조선소 기술 향상을 적극 지원해 전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을 사장은 “AI와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실증은 물론, 사내외 협력사 작업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까지 수행하는 미래형 스마트 조선소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2025년 영광군 청소년

Green Energy 독서 발표대회 시상식 개최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면, 이하 한빛본부)가 6월 19일(목) 한빛에너지관에서 ‘2025년 제5회 영광군 청소년 Green Energy 독서 발표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한빛본부가 주관하고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이 지원하는 본 대회는 발전소 주변 지역 학생들이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독서와 발표를 통해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영광군 관내 초등부와 중고등부 총 13

교 27팀이 독서발표대회에 참여하였으며, 예선 심사를 거쳐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에 참여한 학생들은 독서를 통해 얻은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에너지와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졌다.

초등부 대상은 탄소중립의 의미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 흥농초등학교 김리안, 우지원, 윤고은, 정시온 학생이, 중고등부는 미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영산성지고등학교 김보배, 아유나, 홍세아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초등부 11팀, 중고등부



9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이 수여되었으며, 최우수상 7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을 팀별로 각각 지급

하였다.

앞으로도 한빛본부는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를 이룰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2025년 상반기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6월 19일 2025년 상반기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상생협의체는 보험자인 공단을 포함, 공급자(의약단체), 가입자(소비자·시민·여성단체), 학계(대학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건강보험 제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 정보 공유로 이해당사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 ▲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경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 운영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등 공단의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

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간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성에 공감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6년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영희 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단순한 제안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단도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보성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 행복 전하는 밑반찬 나눔 봉사

여름맛이 정성 담긴 반찬에 마음 더해… 건강한 여름나기 응원

보성군은 지난 18일, 보성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회장 김미숙) 회원 20여 명이 별교자원봉사센터에서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하고, 폭염 대비 안부 확인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2025년 전라남도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행복을 전하는 밑반찬 나눔 & 마음 살핌 봉사』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335만 원(도비 300만 원, 자부담 35만 원)

이 투입됐다.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겉절이와 장조림 등 계절 밑반찬 2종을 정성껏 조리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김미숙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반찬과 함께 이웃들에게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기꺼이 봉사에 참여해주신 여성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밑

반찬 나눔과 안부 확인 활동이 우리 주변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